

전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2조 민선 8기 1호 투자유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산업 구축

전라남도가 7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융·복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민선8기 첫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VIP실에서 ㈜대우건설, ㈜엔디엠자산운용의 합작법인 (㈜전남인프라에너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민선 8기 1호 결재이자 공약인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투자유치' 달성의 힘찬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명현관 해남군수, 임상업 (주)전남인프라에너지 대표, 임상업 (주)엔디엠자산운용 박재용 대표, 조승일 (주)대우건설 본부장이 참석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이후 투

자금액이 가장 큰 이 사업은 (주)대우건설의 기술력과 (주)엔디엠자산운용의 자금력을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전남인프라에너지는 오는 2026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최첨단 스마트팜 등 융·복합 시설을 구축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2026년까지 사업 기간 월평균 500여 명의 건설인력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33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저장하지 않고 즉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폭발과 화재 위험성이 없어 안전하다. 미세먼지 정

화 효과도 탁월해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 800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66만㎡ 규모 스마트팜 시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운수 등을 스마트팜 시설 내 작물 생육과 난방에 사용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증대와 스마트 영농에 적합한 청년층 인구 유입은 물론, 조성 예정인 유림마을 등과 연계해 기업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인프라 구축도 빨라질 전망이다. 투자기업이 삼



전라남도가 7일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융·복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민선8기 첫 투자유치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이날 (주)대우건설, (주)엔디엠자산운용의 합작법인 (주)전남인프라에너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호읍과 솔라시도 사이 5km 구간의 가스 인입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기업도시와 인근 마을 도시가스 공급이 예정보다 앞당겨진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토대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고 전남을 세계 1등 수소산업 메카로 우뚝 세우겠

다"며 "향후 스마트팜 운영 시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용운기자

광주광역시시장직 인수위 최종 활동보고회 개최

새로운 광주 담은 첫 번째 '광주 전략보고서' 전달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광역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7일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강기정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30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인수위원, 자문위원, 광주시 실·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진 첫 위원회로 지난 6월 7일 출범해 6개 분과 및 2개 TF(국비대응·현안대책)를 운영하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의 초당적 예산

정책간담회, 역대 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균형발전3.0 간담회, 광주·전남 상생간담회,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 흥준표 대구시장과 MBC 100 분토론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지역균형발전 및 광주·전남 상생협력' '영·호남 초광역협력 사업 구상' 등 더 큰 광주를 위한 기반도 확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인수위의 활동을 종료하며 시민들에게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밀린 숙제 현안 5+1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제1호 광주전략보고서'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품쟁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등 5대 시정목표와 135개 시정공약을 선정해 광주시에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의 시정철학인 '활력' '산업' '가치'를 담아 당초 331개에서 최종 135개로 압축한 것으로 민선 8기 4년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5대 시정목표 아래 ▲MoT 산업 ▲영산강 Y벨트 ▲광주 다음 5대 돌봄 ▲안전과 교육의 컨트롤 타워 등 15개 핵심공약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3대 비엔날레 도시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어 임선숙 부위원장이 인수위 출범부터 관심을 모았던 광주의 오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안대책TF 위원들은 30일간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자 간담회 끝에 시민의 안전과 광주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 해결방안을 내겠다는 5개 현안 중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4개 사업은 6개월 이내에 추진한다는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지산IC 진출로 개통 문제는 지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현 지산IC는 보안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현 지산IC의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통, 폐쇄 대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백운광장 지하차로 설치의 지하차도 침수 등 안전성, 주변상권 활성화 저해 등을 고려했으나 향후 안전대책 및 매뉴얼을 충분히 검토·마련해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현재 양방향 2차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활성화, 교통대책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협상절차 진행을 통해 6개월 안에 협상을 확정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17년간 장기표류 중인 사업으로 속도감 있

고 효율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며 '우선 소송기간 중 사업추진 방법 및 사업성 조사, 공모안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군 공항이전특별법 제·개정과 광주형 공항 모델 제시 및 공모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균형 있게 고민해 임기 4년 내 공모 절차 착수를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서 광주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어 내겠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 행정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안된 공약은 실국별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 전략보고서는 민선8기 동안 시정의 전략과 비전을 담아 매년 발행될 예정이다. /이유빈기자

함평채
HAMGYEONG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미나 방호박 Sweet Pumpkin
함평비쌀 Premium
함평비쌀 Premium